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윤병화 (호서대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이상직 (호서대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확장된 목표지향 행동모델(extended MGB)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확장된 목표지향 행동모델은 독립변수로 태도, 사회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인지된 행동통제 변인에 경제적 준비도와 사회적 자본을 추가하였다. 매개 변수로 열망을 그리고 최종 종속변수로 재취업의도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연구 모형에 대해 베이비부머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준비도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자본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보다는 경제적 준비도 여부가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도, 사회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인지된 행동통제 변인은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검정 되지 않았다. 이들은 열망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술적인 시사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베이비부머, 재취업 의도, 목표지향 행동모델, 경제적 준비도, 사회적 자본

1. 서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약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에 달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일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으며,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세대이다. 이제 이들이 현업에서 은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들은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되지 않는 퇴직과 은퇴’가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갈등의 화두인 정년 연장이나 철폐한 세대갈등 논란,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로 대변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과 핵심 직무 역량의 감퇴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비정규직으로 실질적인 은퇴 연령까지 근로 생활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최석현·김재신, 2018). 베이비부머들은 노동 시장의 큰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퇴직 후 진로 문제를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은퇴 후 재취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50~60대 은퇴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미

래셋은퇴연구소, 2019), 2000년대 이후 일의 성격 변화, 은퇴자 교육, 사회 참여 욕구 증대 등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완전한 은퇴’가 아닌 재취업을 하거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퇴직’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강순희, 2016). 최근들어 이들 세대의 대량 은퇴를 앞두고 재취업이 연구의 새로운 관심이 되고 있다.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강순희, 2016),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재취업 의도에 관한 연구(강경란, 2018),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에 대한 진로 전환 연구(박상우, 2019) 등이 있다. 이들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재취업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확인이나 욕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세대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재취업을 위한 대안을 제시(김수영 외, 2015)한 연구 결과는 아직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된 연구 모형이나 방법, 연구 결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목표지향행동모델(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을 확장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목표지향행동모델(MGB)에 의하면 개인의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가 행동의

* 주저자, 호서대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bobbyune@nate.com

** 교신저자, 호서대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lsj9669@naver.com

· 투고일: 2020-07-10 · 1차 수정일: 2020-08-02 · 2차 수정일: 2020-08-20 · 게재확정일: 2020-08-21

도에 직접 혹은 열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전적인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 TPB)에 동기와 정서적 요인을 포함 시키면서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이론보다 설명력이 높음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Meng & Han, 2016). 또한 한국에서는 MGB를 활용한 연구들이 쇼핑, 식품산업, 플랫폼비즈니스, 관광, 체험, 스포츠 분야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MGB를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베이비부머 재취업 특성을 고려하여 확장된 MGB기반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둘째, 설정된 연구모형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을 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학술적인 시사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베이비부머와 재취업

베이비붐(baby boom)이란 출생률 증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특정한 시기에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출생한 인구집단을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고 부른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이 일어났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종전 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베이비붐이 일어났다. 한국 인구의 약 14.6%인 712만명이 베이비부머에 속한다. 이들은 한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중추적인 세대이다. 이제 이들이 은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퇴 시작한 이들은 일자리, 가족지지, 노후준비 등에서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삼성생명은퇴연구소(2017)에 의하면 실질 은퇴 평균 연령이 OECD 국가의 경우 64.9세라고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72.9세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통계청(2018)은 한국인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49.1세라고 하였다.

실질 은퇴 연령과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사이에는 20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간극이 발행하는 시기에 베이비부머들은 핵심 직무 역량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과 핵심 직무 역량의 감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불안정한 노후 준비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노후보장의 한 축이었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은 부모부양 가치관 변화로 약화되었고, 자녀 양육과 부모님 봉양의 2중 부담 속에서 본인의 노후준비를 불안전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박창환(2019)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이전의 노인 세대와 다른 특성

을 보인다고 한다. 교육수준이 과거 고령자에 비해 높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거나 활동적인 특징을 보인다. 삼성생명은퇴연구소(2017)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들은 노동시장에 남아있으려는 의지가 높다고 하며, 재정적 이유를 포함해서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재취업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2019)에 의하면 재취업자 중 36.2%가 재취업을 결정하게된 이유를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자녀 및 부모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필요도 28.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재취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표 1>과 같다.

<표 1>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 관련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강순희(2016)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 고용안정성 및 일자리 만족도 관련 연구
이성진(2016)	퇴직 후 재취업과 사회참여 활동 의지에 관한 질적 연구
이응목(2016)	퇴직한 중년남성들의 재취업과정 탐색
임정연·이영민(2016)	한국 베이비부머(Baby Boomer)의 직업이동 특성 분석
강경란(2018)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재취업의도에 관한 연구
최석현·김재신(2018)	50, 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황기식·김선희(2018)	EU의 재취업정책의 특징 및 성과가 한국의 재취업 프로그램에 주는 시사점
박상우(2019)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진로전환에 관한 연구

강순희(2016)는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할수록, 퇴직 전 근속기간이 길수록 재취업을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노후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의 재취업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상우(2019)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진로전환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박혜성 외, 2020). 강경란(2018)은 베이비부머들의 창업 및 재취업 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적 준비도는 재취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트워크는 재취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들이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박중범 외, 2020).

재취업은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재취업과 관련한 일부 연구가 있었지만,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미함에 따라 합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다. 다만, 경제적 필요성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희, 2016; 강경란, 2018;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9). 둘째, 이들의 연구들이 현상 진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2.2 확장된 목표지향 행동모델 (extended MGB)

2.2.1 목표지향 행동모델

인간의 행동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태도와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은 사회심리학분야에서 주류를 이루어왔다(Fishbein & Ajzen, 1975). TRA의 장점 중의 하나가 간결성이며 이러한 장점으로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연구에 활용되어 왔었다. 이에 대한 변화는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 TPB)에서 일어났다. TPB는 TRA에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PBC) 변인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계획행동이론은 인간 행동의 동기 및 정서적 요인을 간과한 단점이 있었다(Perugini & Bagozzi, 2001, 2004). 이에 Perugini & Bagozzi(2001)는 목표지향행동모델(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urs)을 제안했다. 목표지향행동모델(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urs)는 TPB에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긍정적 기대정서(Positive Anticipated Emotions: PAE)와 부정적 기대정서(Negative Anticipated Emotions: NAE)를 추가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열망(Desires)를 추가 하였으며, 조절 변수로는 과거 행동 빈도와 최근성(Frequency and Recency of Past Behaviour)를 추가하였다(Perugini & Bagozzi, 2001). MGB는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가 행동의도에 직접 혹은 열망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동기와 정서적인 요인을 포함하면서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이론보다 설명력이 높음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의 행동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 이론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있다(Meng & Han, 2016). MGB의 변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란 특정된 행동을 하고자 결정하는 환경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평가(evaluation or appraisal)의 수준을 의미한다(Ajzen, 1991). 이러한 태도는 실제 특정된 행동에 영향 관계를 맺는 가장 필요한 심리 변수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행동을 예상하거나 전환시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Ajzen(1991)은 태도와 행동의도 간에는 태도가 긍정적이면 행동 의도가 커진다고 하였다. 둘째, 사회적 규범(subject norm)은 특정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인지된 사회적 압력(perceived social pressure)이다(Ajzen, 1991).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행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준거인들이 그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

이 높다(Fishbein & Ajzen, 1975). 셋째,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라함은 행동이 자기의지의 통제 하에 있고 그 실행이 쉽다고 믿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 실행성의 용이성 정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을 반영한 것이다(Ajzen, 1991). 이 지각된 행동통제에는 과거의 경험 및 예상되는 어려움 내지 방해(anticipated impediments and obstacles)를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Ajzen, 1991; Ajzen & Driver, 1992). 계획된 행동통제가 클수록 특정 행동을 할 의도가 높아진다고 한다(Ajzen, 1991). 넷째, Perugini & Bagozzi(2001)는 TPB의 독립변수로 기대 정서(Anticipated Emotions: AE)를 추가하였다. 개인의 특정 행동 여부는 그 행동을 할 경우 결과로서 예상되어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Bagozzi & Pieters, 1998). 기대 정서는 개인이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가 달성되거나 실패할 경우를 가정한 정서이다(Bagozzi et al., 2000). 긍정적 기대 정서는 특정 행동을 할 경우 기대되어 지는 심리적 혜택으로서 지속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부정적 기대정서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어지는 심리적 피해를 의미한다. Perugini & Bagozzi(2001)등의 실증적 연구에서도 긍정적 기대정서와 부정적 기대정서들이 특정행동 수행의 열망 및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다섯째, Gollwitzer et al.(1990)은 행동단계모형(action phases model)에서 열망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을 통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GB에서는 행동을 하는 이유를 목표 달성에 두고 있으므로 열망은 특정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외재적 열망(extrinsic desire) 이라고도 한다(Mele, 1995). 따라서 열망은 행동에 대한 평가와 합리성이 행동을 해야 하는 사유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심적 동기부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MGB에서 동기 혹은 열망은 행동 의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Perugini & Bagozzi(2001)가 MGB에서 제시한 열망은 자발적인 열망이다. 그들에 의하면 목표에 대한 자발적인 열망은 독립변수인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와 행동의도간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섯째, Ajzen(1991)은 행동 의도를 신념 혹은 태도가 행동화될 주관적 가능성이라 했다. 이 행동 의도는 태도와 행동 사이의 매개변수로써 인식되는 것이며 자신의 주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 의도가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소(motivational factors)를 포함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행동 의도가 높을수록 특정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특정된 행동은 그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를 맺는것보다 의도라는 매개요인을 기반으로 실현되고, 이러한 의도는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하여 영향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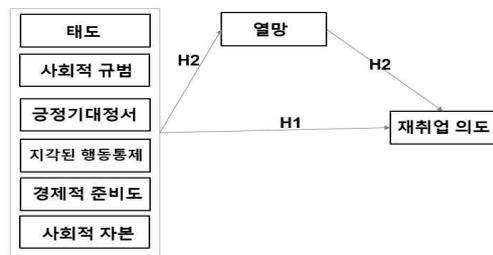
2.2.2 목표지향 행동모델의 확장

목표지향 행동모델은 어떠한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즉, 한국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이를 태도, 주관적 규범,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 이외에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준비도와 사회적 자본을 추가하였다. 첫째, 경제적 준비도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과 예상되는 수입액을 계산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이나 질병, 고독 및 무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노후지원법, 2015). 통계청(2017)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55~79세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2만원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의 4배에 이르며 2014년 기준 노년층 인구의 절대 빈곤율은 30%에 이른다. 더구나 자산의 80%를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부동산 보유가구의 대다수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준비도와 재취업 의도간에는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영향 변수로 파악되고 있다(강순희, 2016; 강경란, 2018;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9). 특히 강경란(2018)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준비도는 재취업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표지향 행동모델의 확장을 위해 사회적 자본을 선행변인으로 추가하였다. Bourdieu(1986)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으로 개인간의 협력을 통하여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재취업이나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신뢰(박지유, 2014)와 네트워크(김은경, 2015; 박지유, 2014)가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부 보완하여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공식 및 비공식 네트워크와 신뢰 등으로 구성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인인 이유는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이 공식적인 취업 사이트를 통하기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강경란·박철우(2017) 및 이한석·이영균(201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사회적 자본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재취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강영숙·정자영, 2020).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 간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목표지향행동모델을 근간으로 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경제적 준비도와 사회적 자본을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열망을 선행변수와 재취업의도 간 매개변수로 설정해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가설설정

앞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목표지향 행동모델(MGB)을 적용한 연구들은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및 기대정서는 열망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열망을 통해 행동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Perugini & Bagozzi, 2001). Ajzen(1991)은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의하면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후속 연구들(장보경·김승재, 2019; Tiraeyari & Krauss, 2018; Xu et al., 2020)에 의하면 3가지 요소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행동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태도만 유일하게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에는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많은 경우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확장한 경제적 준비도는 강경란(2018)의 연구에 의하면 재취업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강경란·박철우(2017) 및 이한석·이영균(201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변수와 재취업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 1-1: 태도는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사회적 규범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긍정적 기대정서는 재취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4: 지각된 행동통제는 재취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5: 경제적 준비도는 재취업의도에 부(-)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6: 사회적 자본은 재취업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목표지향행동모델(MGB)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열망이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Perugini & Bagozzi(2001)는 열망은 선행변수와 행동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며, 열망을 통해 행동의도가 높아짐을 밝혔다. 변현 외(2018)은 프로야구팬들의 시청의도 분석연구를 통해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정서와 행동의도 간에 열망은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반면, 사회적 규범과 부정적 기대정서와 행동의도 간 열망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MGB를 활용하지 않는 연구에서 열망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선행연구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Liou et al.(2016)은 가상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열망이 가상공간 사이트의 신뢰성과 정보공유 간의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선행 연구들(사헤지 외, 2018; 류미현·장몽교, 2019)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에서 열망의 매개효과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MGB나 다른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에서 대부분 열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2-1: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태도와 재취업 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2-2: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사회적 규범과 재취업 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2-3: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긍정적 기대정서와 재취업 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2-4: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지각된 행동통제와 재취업 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2-5: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경제적 준비도와 재취업 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2-6: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사회적 자본과 재취업 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3 설문 설계 및 조사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최종 채택된 측정변수와 원출처는 <표 2>와 같다. 즉,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모든 항목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구

성된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그중 유효한 201부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표 2> 측정변수 및 출처

요인	변수	측정 항목	출처
태도	att1	재취업을 하는 것이 다른것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Perugini & Bagozzi (2001), Liou et al. (2016)
	att2	재취업을 하는 것은 매력적이라 생각한다	
	att3	재취업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att4	재취업을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규범	sn1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재취업을 하는것에 대해 찬성할것이다	
	sn2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재취업을 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sn3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재취업을 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sn4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재취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긍정적 기대 정서	pae1	만약 재취업을 한다면, 나는 신날 것이다.	
	pae2	만약 재취업을 한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pae3	만약 재취업을 한다면, 나는 즐거울 것이다	
	pae4	만약 재취업을 한다면, 나는 뿌듯할 것이다	
지각된 행동 통제	eff1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재취업을 할 자신이 있다	
	eff2	나는 업무관련 좋은 reference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eff3	내가 재취업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최신의 skill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eff4	지금의 내 역량 수준은 재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eff5	현재의 내 자격 요건으로 재취업하고자 하는 조직의 고용주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준비도	ep1	재취업을 하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편이다(R)	강순희 (2016), 강경란 (2018)
	ep2	현재까지 경제 상황으로는 재취업을 하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편이다(R)	
	ep3	가족 구성원 중 나 이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만한 소득원이 없는 편이다(R)	
	ep4	부동산, 저축, 연금 등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다	
사회적 자본	sc1	내가 재취업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알고있다	강경란·박철우 (2017), 이한석·이영균 (2019)
	sc2	내가 재취업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sc3	내가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기관 등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sc4	내가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신뢰할만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열망	des1	나는 가까운 미래에 꼭 재취업 하고 싶다	Liou et al. (2016)
	des2	나는 가까운 미래에 재취업 하기를 희망한다.	
	des3	나는 가까운 미래에 재취업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des4	나는 가까운 미래에 좋은 재취업 기회를 꼭 얻고자 한다	
재취업 의도	rei1	나는 재취업 할 의향이 있다	강경란 (2018), 이한석·이영균 (2019)
	rei2	나는 재취업 할 계획이 있다	
	rei3	나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rei4	나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 할 의향이 있다.	

3.4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 활용된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75.1%로 압도적으로 많다. 학력은 대졸이 67.7%였다. 재취업관련 교육을 1회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6.4%로 나타났다. 연령은 베이비부머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1955년생 24명, 1956년 18명, 1957년 15명, 1958년 35명, 1959년 32명, 1960년 30명, 1961년 16명, 1962년 19명, 1963년 12명이었다.

<표 3>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51	75.1
	여성	50	24.9
	전체	201	100.0
학력	고졸이하	35	17.4
	대졸	136	67.7
	대학원졸	30	14.9
	전체	201	100.0
재취업 교육 수강회수	없음	148	73.6
	1회	26	12.9
	2회	12	6.0
	3회이상	15	7.5
	전체	201	100.0

IV. 연구 결과

4.1 구조방정식 모델 적합도 검정 결과

설문 문항의 구성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 타당성은 모델 적합도 지수가 요구되는 기준을 만족시킬 때 구성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Hair et al.(1998), 송지준(2016), 조철호(2017), 우종필(2017) 등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χ^2/DF , GFI, AGFI, CFI, RMR, RMSEA지수를 활용하였다(<표 4> 적합도 평가지수 참조). 가설검정은 AMOS 23을 활용한 구조방정식으로 하였다. 가설검정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구성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집중타당도는 여러 변수가 동일 구성 요소에 일치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5이상, factor loading값 .5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구성 요소 간 내적 일관성은 CR(Composite Reliability)값과 Cronbach's α 값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두 기준값이 모두 .7이상때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변수별로 측정 항목들의 요인 부

하량은 모두 유의한 .6이상을 보였고 개념 신뢰성은 모두 .7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분산추출(AVE)은 모두 .5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집중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Hair et al., 1998). 한편, CR(Composite Reliability) 값과 Cronbach's α 값이 모든 요인에서 .7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측정 모형 적합도 평가

적합도 평가지수	권고값	확인요인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χ^2/DF	3이하	1.432	1.305
GFI	.9이상	.901	.911
AGFI	.8이상	.825	.854
CFI	.9이상	.973	.982
RMR	.05이하	.033	.032
RMSEA	.08이하	.046	.039

χ^2/DF =Normed χ^2 ,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R=Root Mean-squared Residual, RMSEA=Root Mean-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수	Factor Loading	CR	AVE	Cronbach's α
태도	att4	.824	.846	.648	.786
	att3	.732			
	att1	.684			
사회적 규범	sn3	.848	.934	.825	.871
	sn2	.879			
	sn1	.793			
긍정적 기대정서	pae4	.913	.976	.910	.962
	pae3	.951			
	pae2	.906			
	pae1	.950			
지각된 행동통제	eff5	.816	.919	.694	.902
	eff4	.769			
	eff3	.870			
	eff2	.861			
	eff1	.734			
경제적 준비도	ep3	.714	.762	.516	.718
	ep2	.767			
	ep1	.748			
사회적 자본	sc3	.749	.929	.816	.900
	sc2	.941			
	sc1	.927			
열망	des1	.945	.975	.906	.973
	des2	.969			
	des3	.955			
	des4	.925			
재취업 의도	rei1	.929	.964	.870	.963
	rei2	.916			
	rei3	.960			
	rei4	.923			

한편, 판별타당성은 서로 독립된 변수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변수 간 상관이 낮을수록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우종필, 2017). 판별타당도는 Fornell & Larcker(1981)에 의하면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보다 클 때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본다. <표 6>에서와 같이 AVE의 제곱근 값(음영 표시 값)이 각각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도도 확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신뢰도 및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표 6>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태도	사회적 규범	긍정적 기대	효능감	경제 준비	사회 자본	열망	재취업 의도
태도	.805							
사회적 규범	.577**	.908						
긍정적 기대정서	.685**	.480**	.954					
지각된 행동통제	.296**	.356**	.448**	.833				
경제적 준비도	-.275**	-.370**	-.320**	-.336**	.718			
사회적 자본	.196**	.219**	.296**	.658**	-.228**	.903		
열망	.552**	.470**	.709**	.507**	-.500**	.353**	.952	
재취업 의도	.433**	.410**	.538**	.430**	-.500**	.389**	.783**	.933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AVE제곱근값임

4.2 가설 검증 결과

4.2.1 구조방정식에 의한 인과관계 검증

인과관계 가설검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태도는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224, p>.05$). 따라서 가설 1-1. ‘태도는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 되었다.

사회적 규범은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108, p>.05$). 따라서 가설 1-2. ‘사회적 규범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 되었다. 긍정적 기대 정서는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218, p>.05$). 따라서 가설 1-3. ‘긍정적 기대정서는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 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beta=-.021, p>.05$). 따라서 가설 1-4. ‘지각된 행동통제는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 되었다.

경제적 준비도는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eta=-.450, p<.05$). 따라서 가설 1-5. ‘경제적 준비도는 재취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187, p<.05$). 따라서 가설 1-6. ‘사회적 자본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7> 인과관계 가설검정 결과

가설 및 경로				β	S.E	C.R.	P	검정 결과
H1-1	태도	-->	재취업 의도	.224	.208	1.446	.148	기각
H1-2	사회적 규범	-->	재취업 의도	-.108	.161	-.992	.321	기각
H1-3	긍정적 기대정서	-->	재취업 의도	.218	.135	1.964	.051	기각
H1-4	지각된 행동통제	-->	재취업 의도	-.021	.116	-.224	.823	기각
H1-5	경제적 준비도	-->	재취업 의도	-.450	.169	-4.535	***	채택
H1-6	사회적 자본	-->	재취업 의도	.187	.093	2.263	.024	채택

4.2.2 열망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차를 추정하는 bootstrapping 방식으로 오차 및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파악했다(Hayes, 2013).

신뢰구간 추정법에 의한 매개효과 가설 검정의 경우 간접효과와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의 하한선(Lower Limit of 95% CI: LLCI)과 상한선(Upper Limit of 95% CI: ULCI)값 사이에 0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즉, 둘 사이에 0이 존재하면 유의하지 않는 것이며, 0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LLCL과 ULCL 사이에 0이 존재한다는 것은 추정에 따라 정(+)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유의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태도, 사회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경제적 준비도, 사회적 자본과 재취업의도간 열망의 매개효과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의 LLCI와 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태도, 사회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재취업의도간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반면 간접효과만 유의하였다. 이들간의 관계는 완전 매개효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1.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태도와 재취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2.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사회적 규범과 재취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3.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긍정적 기대정서와 재취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4.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지각된 행동통제와 재취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5.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경제적 준비도와 재취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6. 재취업에 대한 열망은 사회적 자본과 재취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8> 열망의 매개효과 검증

			Effect	S.E	t	P	LLCI	ULCI	검정결과
H2-1	태도	총효과	.593	.088	6.773	.000	.420	.766	채택 (완전매개)
		직접효과	.001	.073	.014	.989	-.142	.144	
		간접효과	.592	.085			.424	.759	
H2-2	사회적 규범	총효과	.610	.096	6.334	.000	.420	.800	채택 (완전매개)
		직접효과	.080	.074	1.072	.285	-.067	.226	
		간접효과	.530	.089			.353	.701	
H2-3	긍정적 기대정서	총효과	.668	.074	9.002	.000	.522	.815	채택 (완전매개)
		직접효과	-.044	.078	-.564	.673	-.197	.110	
		간접효과	.712	.072			.576	.855	
H2-4	지각된 행동통제	총효과	.521	.078	6.712	.000	.368	.675	채택 (완전매개)
		직접효과	.053	.062	.848	.397	-.070	.175	
		간접효과	.469	.067			.334	.599	
H2-5	경제적 준비도	총효과	-.594	.073	-8.140	.000	-.738	-.450	채택 (부분매개)
		직접효과	-.172	.059	-2.894	.004	-.289	-.055	
		간접효과	-.422	.063			-.562	-.343	
H2-6	사회적 자본	총효과	.468	.079	5.954	.000	.313	.622	채택 (부분매개)
		직접효과	.155	.056	2.779	.006	.045	.265	
		간접효과	.313	.064			.186	.440	

4.3 논의

가설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지향행동모델의 확장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입한 경제적 준비도는 재취업의도에 직접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재취업에 대한 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재취업을 노후 경제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2만원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65세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의 4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자산의 80%를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부동산 보유가구의 대다수가 부채를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하게됨에 따라 재취업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재취업의도에 관한 연구를 한 강경란(2018)의 연구 결과 와 동일하다.

둘째, 목표지향행동모델의 확장 변인으로 새롭게 투입한 사회적 자본 역시 재취업의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취업의 경로가 공개적인 채용 경

로보다는 본인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할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재취업의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강경란·박철우(2017) 및 이한석·이영균(201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흥미로운 결과중의 하나는 사회적 자본이 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경제적 준비도 여부가 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미치는 요인중 노후의 경제적 준비 여부가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목표지향행동모델에서 사용한 태도, 사회적 규범, 긍정적 기대 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변인은 본 연구의 베이비부머 재취업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검증되지 않았다. 대신 열망(desires)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열망이 이들 선행변수와 재취업의도간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망은 행동에 대한 평가와 합리성이 행동을 해야 하는 사유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심적 동기부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태도, 사회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같은 선행변인들이 심리적인 동기부여 상태인 열망이 있을 경우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열망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베이비부머 스스로 재취업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재취업의지는 달라짐을 알수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열망이 선행변인과 행동의도간 일부는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하도 일부는 하지 않기도 하는 등 일관된 연구결과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두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의 연구와 달리 열망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 확인 되었다.

V.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확장된 목표지향 행동모델을 연구모형으로 베이비부머 201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확장된 목표지향행동 모델은 독립변수로 태도, 사회적 규범, 긍정적기대정서, 인지된 행동통제 변인에 경제적 준비도와 사회적 자본을 추가하였다. 매개 변수로 열망을 그리고 최종 종속변수로 재취업의도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경제적 준비도는 재취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자본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보다는 경제적 준비도 여부가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태도, 사회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인지된 행동통제 변인은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검증 되지 않았다. 이들은 열망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을 학술적인 시사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술적인 시사점은 첫째,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목표지향행동모델에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경제적 준비도와 사회적 자본을 추가하여 확장된 목표지향행동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기존의 목표지향행동모델과 달리 새롭게 도입된 경제적 준비도와 사회적 자본이 베이비부머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목표지향행동모델은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모델임을 검증하였다. 둘째, 재취업의도에도 심리적 동기부여 상태인 열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선행 변수와 재취업의도간 열망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분야의 연구보다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서의 열망은 더욱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점이다.

실무적인 시사점은 첫째,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의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노후 경제적 준비도 여부였다. 자아실현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재취업관련 지도나 교육에 있어서 노후 경제적 준비도에 대한 분석과 같은 tool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재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본 연구 변인이외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베이비부머들의 심리적인 동기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향후 재취업관련 교육 등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3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이러한 학술적 및 실무적인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해석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내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연구모형으로 목표지향행동모델에서 최종 종속변수인 재취업행동 대신 재취업의도로 삼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재취업행동까지를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재취업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아직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조사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은퇴를 하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업에 있으면서 재취

업을 미리 생각하는 집단과 은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구분 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한 연구설계를 통해 분석해볼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재취업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재취업관련 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취업 교육 수강 유무에 따라 재취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재취업교육 유무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

- 강경란(2018). *베이붐 세대의 창·재취업 의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강경란·박철우(2017).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2(5), 177-189.
- 강순희(2016). 중고령자 재취업의 결정요인, 일자리 만족도 및 고용안정성. *취업진로연구*, 9(3), 117-140.
- 강영숙·정자영(2020).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5(1), 259-268.
- 김수영·장수지·이재정·문경주(2015). 베이비붐세대의 재취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67, 107-132.
- 김은경(2015). *개인적 경력지향성과 노후준비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류미현·장몽교(2019). 확장된 목표지향행동 모델을 적용한 중국 소비자의 명품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소비가치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6(2), 101-130.
- 미래에셋은퇴연구소(2019). *5060 일자리 노마드족이 온다: 5060 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 경로분석*. 서울: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박상우(2019).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진로전환에 관한 연구: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5), 155-162.
- 박종범·양영석·김명숙(2020). 액티브 시니어의 경력지향성과 창업교육 만족이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5(1), 285-301.
- 박지유(2014). *창업가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박창환(2019).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일과 여가관계 분석. *관광연구논총*, 31(3), 141-169.
- 박혜성·박우진·배병윤(2020). 강점인식이 은퇴 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을 대상으로. *벤처창업연구*, 15(1), 143-150.
- 법제처(2015). *노후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Retrieved (2020.08.26.) from <http://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5%B8%ED%9B%84%EC%A7%80%EC%9B%90%EB%B2%95>.
- 변현·조광민·배정섭(2018). 목표지향행동모델을 통한 프로야구팬들의 시청의도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3(3), 16-37.
- 사혜지·이철원·김민정·이민석(2018).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 모델

- 을 이용한 2018평창 동계 올림픽 시설 방문행동 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2(3), 57-72.
- 삼성생명은퇴연구소(2017). *은퇴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 서울: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송지준(2016).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 방법*. 서울: 21세기사.
- 우종필(2017).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이성진(2016). 퇴직 후 재취업과 사회참여 활동 의지에 관한 질적 연구. *인문사회*21, 7(6), 931-946.
- 이응목(2016). 퇴직한 중년남성의 재취업과정 탐색.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한석·이영균(2019). 신중년의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5), 33-40.
- 임정연·이영민(2016). 한국 베이비부머(Baby Boomer)의 직업이동 특성 분석.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3), 223-230.
- 장보경·김승재(2019). 자기결정성 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한 대학생의 운동행동 예측모형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8(3), 93-108.
- 조철호(2017). *SPSS/AMOS 활용 구조방정식모형 논문 통계분석*. 서울: 도서출판청람.
- 최석현·김재신(2018).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 전망. *경기연구원 이슈 & 진단*, (312), 1-25.
-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 황기식·김선희(2018). EU의 재취업정책의 특징 및 성과가 한국의 재취업 프로그램에 주는 시사점: 독일 Perspektive 50 plus 사례와 한국 NY Plus 30의 비교를 통하여. *세계지역연구논총*, 36(4), 3-28.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0.
- Ajzen, I., & Driver, B. L.(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 207-224.
- Bagozzi, R. P., & Pieters, R.(1998). Goal-directed Emotions. *Cognition & Emotion*, 12(1), 1-26.
- Bagozzi, R., Baumgartner, H., Pieters, R., & Zeelenberg, M.(2000). *The Role of Emotions in Goal Directed Behavior*. In S. Ratneshwar, D. G. Mick, C. Huffman(Eds.), *The Why of Consumption*. London: Routledge.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Byun, H., Cho, K. M., & Bae, J. S.(2018). A Study on the Viewing Intention of Professional Baseball Fans by using Extended Goal-directed Behavior Model. *Kore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23(3), 16-37.
- Cho, C. H.(2017).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PSS/AMOS*. Seoul: Chungnam.
- Choi, S. H., & Kim, J. S.(2018). 50 60 Generations Job Safety Net in Preparation for Unemployment and Retirem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Issue & Analysis*, 312. 1-25.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u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ollwitzer, P. M., Heckhausen, H., & Steller, B.(1990). Deliberative and Implemental Mind-sets: Cognitive Tuning toward Congruous Thoughts and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119-1127.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Hayes, A. H.(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The Guilford Press.
- Hwang, G. S., & Kim, S. H.(2018). The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EU Reemployment Policies Implications of Reemployment Programs in Korea: Through Comparison of German Perspektive 50plus Case and Korean NYP lus30.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36(4), 3-28.
- Jang, B. K., & Kim, S. J.(2019). Testing a Predicting Model of College Students' Exercise Behaviors using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8(3), 93-108.
- Kang, G. L.(2018).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Reemployment Intentions of the Baby-Boom Generation*.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Kang, G. L., & Park, C. W.(2017). The Effects of Career Orientation on the Entrepreneurial-Reemployment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ocial Capital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5), 177-189.
- Kang, S. H.(2016). A Study on Reemployment Determinants, Job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of the Aged.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9(3), 117-140.
- Kang, Y. S., & Jang, J. Y.(2020).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 and Social Suppor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259-268.
- Kim, S. Y., Chang, S. J., Lee, J. J., & Moon, K. J.(2015). Factors affecting on the Willingness of Re-employment among Babyboom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7, 107-132.
- Kim, E. K.(2015). *The effects of individual career orientation and preparation of the old ag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ocial network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Lee, S. J.(2016). Qualitative Study on Intention for Reemployment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 after Resign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ail Sciences* 21, 7(6), 931-946.
- Lee, E. M.(2016). *An Exploration of the Reemployment*

- Process of Retired Middle-Aged Men*.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Lee, H. S., & Lee, Y. G.(2019). The Impact of the Middle Ag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Reemploy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33-40.
- Lim, J. Y., & Lee, Y. M. (2016). A Study on Job Mobility of Korean Baby Boome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3), 223-230.
- Liou, D. K., Chih, W. H., Hsu, L. C., & Huang, C, Y.(2016). Investigating Information Sharing Behavior: The Mediating Roles of the Desire to Share Information in Virtual Communities. *Information System & E-Business Management*, 14, 187-216.
- Mele, A. R.(1995). Motivaion: Essentially Motivation-constituting Attitudes. *The Philosophical Review*, 104, 387-423.
- Meng, B., & Han, H.(2016). Effect of Environmental Perceptions on Bicycle Travelers' Decision-Making Process: Developing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14.
- Mirae Asset Life Insurance(2019). *5060 Job Nomads are Coming: 5060 Re-employment Path Analysis of Retirees*. Seoul: Mirae Asset Life Insurance.
- MOLEG(2015). *Retirement Support Law, Enforcement Decree, Enforcement Rule*. Retrieved (2020.08.26.) from <http://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5%B8%ED%9B%84%EC%A7%80%EC%9B%90%EB%B2%95>
-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8). *Economic Activity Census*.
-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7). *Economic Activity Census*.
- Park, H. S., Park, W. J., & Bae, B. Y.(2020). Effects of Strength Recognition on the Intent of Start-up after Retirement: To the Office Work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143-150.
- Park, J. B., Yang, Y. S., & Kim, M. S.(2020). The Effects of Active Senior's Career Orientation and Educational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Behavi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143-150.
- Park, S. W.(2019). A Study on the Career Transition for Babyboomer retirees: Based on The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5), 155-162.
- Park, J. Y.(2014).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the Effects of Mentoring*.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Park, C. H.(2019). Analysis of Work and Leisure Relations after Retirement of Baby Boomers in Korea. *Journal of Tourism Studies*, 31(3), 141-169.
- Perugini, M., & Bagozzi, R. P.(2001).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 Directed Behaviou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1), 79-98.
- Perugini, M., & Bagozzi, R. P.(2004). The Distinction between Desires and Inten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1), 69-84.
- Ryu, M. H., & Zhang, M. G.(2019). A Study on the Luxury Goods Purchase Intentions of Chinese Consumers Applying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ption Value.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16(2), 101-130.
- Sa, H. J., Lee C. W., Kim M. J., & Lee, M. S.(2018).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s in visiting for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Stadium Facilities by using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32(3), 57-72.
- Samsung Life Insurance(2017). *People Who Work After Retirement*. Seoul: Samsung Life Insurance.
- Song, J, J.(2016). *SPSS/AMO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Seoul: 21st Pub.
- Tiraieyari, N., & Krauss, S. E.(2018). Predicting Youth Participation in Urban Agriculture in Malaysia: Insights from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Functional Approach to Volunteer Motivation.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35, 637-650.
- Woo, J. P.(2017). *Concepts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 Xu, Z., Shan, J., Lia, J., & Zhang, W.(2020).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Public Participation Behavior in Air Pollution Control: Beijing, China.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63(4), 669-688.

Factors Affecting Reemployment Intention of the Baby Boomer

Yune, Byung Hwa*

Lee, Sang Jik**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reemployment intention of the baby boomer. To this end,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s(MGB) was set as a research model. The extended MGB used in this study added economic readiness and social capital to attitudes, subjective norms, positive anticipated emo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esires was set as a mediating and the reemployment intention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earch model was empirically analyzed with 201 baby boomers.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economic prepar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reemployment intention, and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reemployment intention. Economic preparation rather than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tronger impact on the intention of reemployment. Attitudes, subjective norms, positive anticipated emo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variables were not tested for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reemployment intention. The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employment intention through the mediating of desi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words: baby boomer, reemployment intention,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economic preparation, social capital

* First Author, Ph. D. Candidate,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bobbyune@nate.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lsj9669@naver.com